

팩트체크 + 보고서		 www.medianetwork.kr
2020-8주차	발행일: 2020년 2월 24일(월)	
연락처	(02) 741-7662 (유은실)	FAX (02) 741-7663
대표위원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 보고서」

(2020-8주차)

- 대상 매체·프로그램 : KBS <뉴스9>, KBS <일요진단 라이브> JTBC <뉴스룸>, MBC <뉴스데스크> · <스트레이트> 연합뉴스 등
- 대상 기간 : 2020년 2월 16일(일) ~ 2020년 2월 23일(일) 8일간
- 참여 위원 :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 보고서 발표일 : 2020년 2월 24일

차 례

I. KBS '우한 폐렴 사태' 정부 책임은 '실종' '종교탄압' 우려까지 낳는 '남 탓' 보도2
II. KBS <일요진단 라이브>의 한가한 방통위원장 '홍보대담'4
III. MBC '특정 야당 의원' 공격에 '올인' 비판인가 사냥인가5
IV. MBC <뉴스데스크>의 '대구 혐오' 조장7
V. JTBC 뉴스룸 '질병뉴스의 정치화' 사라진 여권 발 '망언 시리즈'11

VI. '뒷북 대응'에도 정부 자화자찬만 옮겨 적은 연합뉴스

.....14

* 참고말씀

.....16

I. KBS 우한 폐렴(코로나19) 보도 정부 책임은 '실종' '남 탓' 보도는 '종교탄압' 우려까지

1. <뉴스9> '우한 폐렴' 편파방송 일색

- 모니터기간(2020.02.16~2020.02.22) 동안 관련보도는 총 206건 중 85건으로 확인

▶ [전문가 인터뷰] 심상치 않은 확산세...지역사회 전파, 어떻게 대응? (2.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6547>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경계' 단계로 "초기 증상은 미미한데, 전파가 빠르다. 전국이 아니라,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에 관련된 질병임으로서 경계 단계이지, '심각' 단체가 아니다."고 했다.
- 컨트롤 타워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한다. 그렇다면 총리와 대통령이 나설 이유가 없다. KBS와 문 대통령은 과잉대응을 한다. KBS는 과장 보도하여 불안조성하고,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실정을 덮고, 경기 침체를 우한폐렴 탓을 한다. 청와대는 모든 것을 하나로 해석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시도한다. 언론은 청와대의 나팔수가 된지가 오래 전이다.
- 정부의 정책에만 매달리는 KBS <뉴스9> 보도에 불만 많은 대한의사협회이다. KBS 보도에는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중국인 입국 금지 6번 건의,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 의사협회는 '불통 지속되면 의료행위 중단하겠다.'" 청와대는 중국 활짝 문을 열고, 전문가는 중국 개방 문을 닫으라고 한다. 대구시는 중국 초중 등 학생 여행객을 2천 명 씩이나 유입시키고, 공항은 완전 개방상태이다.

- 2020.02.21, 한 카톡의 원XX는 “한여름에 모기장 열어놓고 나서 집안에서 애프킬라 아무리 뿌려본들 모기가 잡히나? ㅈㅈ 문을 닫아걸고 나서 애프킬라로 잡아야 잡히는 거지. 중국애들 입국 금지 안시키고 원 엉뚱한 짓을 하고...”

○ 2020.02.22, 국민일보 문지연 기자, <WHO ‘한국 확진, 중국 다음으로 많다...당국과 협력 중’>. 이상한 소리로 들린다. 대한민국의 동맹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서유럽 국가인데, 청와대는 엉뚱한 중국을 끌고 왔다. 지금까지 말한 ‘우리민족끼리’는 정치 공학적이었다는 소리가 된다. 친중 인사들은 반성할 일이다. 국민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2. ‘정부 책임’ 대신 ‘신천지’ 희생양 삼은 <뉴스9>

○ <뉴스9>은 2월 21일 보도에서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삼는데 동조했다. 이단 종교가 우한 폐렴을 전파시킨다는 논리이다. 예배 방식은 다른 곳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다. 23만 신천지 신도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이날 신천지 관련 보도는 전체 23/34 건으로 신천지 폄하 기사는 거의 5건 수준이다. 특정 종교를 이렇게 집중 포화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종교 자유와 없는 공산주의 국가의 탄압형태와 비슷하다.

-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경계 단계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등이 할 일을 국무총리, 대통령이 나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 타워인데 오버하는 것이다. 22일 하루 229명 확진판정. 22일 정세균 총리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문 대통령 “엄중한 상황...신천지 예배·장례 참석자 철저 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6540>

-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담론이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의 담론에서 오간다. 문 대통령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형 장례예식장까지 언급했다(예식장 관계자는 평상 수준의 장례식 정도였다고 함). 특정 종교 교인들에게 질병이 확산됐다고 대통령이 ‘철저 조사’까지 지시할 수 있을까? 권한남용의 위험이 보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헌법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 모든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공화주의 국가에선 그래야 한다. 특정 종교가 논란이 되는 것과 별개로 KBS는 특정 종교(신천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 공정성에 위배된다.

○ KBS는 결과적으로 의사협회, 야당은 배제되고, 정부여당의 선전장이 되어버린 우한 폐렴 보도였다. 공정성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은 보도임에 틀림 없다. KBS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반기준에서 제1절 공정성 개념 자체를 묵살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 주말 집회’ 강행…종로구, 고발 조치 (2.2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6911>

○ KBS는 일방적으로 정부, 서울시의 편을 들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 “야외 행사 우한 폐렴 상관없다.”고 했다. 전염은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다. 상황인식이 공정하지 못하다. KBS보도는 전광훈 목사의 집회를 폄하로 일관했다. 정부여당과 의사협회 전문가 집단, 야당 등 균형 있는 보도가 아쉽다.

○ KBS는 이번 주 신문 등 다른 언론에서 언급된 경기 침체 문제, 탈원전, 두산 중공업 감원문제, 태양광 문제, 중국에 경도된 소재·부품 사업 등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우한 폐렴 사태에선 정부 책임을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돌리는데 힘썼다. KBS는 환경감시 기능을 포기하고, 균형 감각이 전혀 없는 편파 방송으로 일관했다.

II.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 19 ‘심각단계’에 방통위원장의 ‘한가한’ 홍보 대담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날인데, KBS는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한가하게’ 한상혁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출연시켜 대담했다(2.23).

▶ ‘코로나19’ 가짜뉴스 기승…유포 방지 방안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7018>

○ 부제는 “‘코로나19’ 가짜뉴스 기승…유포 방지 방안은?”이지만, 사실상 가짜뉴스 방지, 소상공인·중소기업 광고 지원 문제, 방송의 비대칭 규제에 등 방통위의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을 했다.

○ <일요진단 라이브>는 “정치 고수의 시선으로 현실 정치의 흐름을 발 빠르게 분석하고 현상의 이면을 날카롭게 통찰한다. 뉴스의 인물을 조명하며, 당국자와 전문가를 초대해 정책 및 현안을 심층 진단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 국가재난 기간방송으로서 ‘코로나 19’와 관련된 현안을 심층 진단했어야 마땅했다.

Ⅲ. MBC ‘특정 야당 의원’ 공격에 ‘올인’ 비판인가 사냥인가

- MBC의 나경원 의원 자녀 관련 집중보도,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소지

1. MBC <스트레이트>의 나경원 의원 자녀 관련 보도

- 2월 17일 <스트레이트>는 “나경원 자녀들 '황금스펙' 3”에서 2019년 11월, 2020년 1월에 이어 나경원 의원 자녀와 스포셜올림픽코리아와 관련된 문제를 취재보도했다.
- 나경원 의원 자녀와 관련 지난 1, 2편에 대한 나경원 의원 측 반응과 그 동안의 나경원 자녀들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중복된 내용이 많았다.
- 나경원 의원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일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은 새로운 이슈를 탐사·분석하는 취재가 부족해서 시청자들에게 소구력이 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클로징에서 사회자는 “청와대와 여권 실세를 향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나경원 의원 의혹 수사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다. 나 의원 역시 전화 한 통이면 서울대 실험실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힘 센 분이기 때문이다. 조국 수사 때 검찰이 보여줬던 정성과 노력의 1/100, 아니 1/200이라도 기울이면 이번 사안의 시시비비. 아마 금방 가려질 것이다.”라고 했다.
- 탐사 다큐멘터리로서 취재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시청자들을 설득하려는 객관성보다는 주장을 외친다는 주창 저널리즘의 태도를 취했고,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선동언론의 행태도 보여주었다.

2. MBC <뉴스데스크>의 나경원 의원 자녀 관련 보도

- MBC <뉴스데스크>는 “성신여대가 나경원 의원 딸 해외연수를 위해 보직교수까지 나서서 외국대학에 특별 요청을 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2.17).

- ▶ [단독] 처장의 '특별 편지'...'나경원 의원 딸인데 연수 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1916_32524.html

- 2월 17일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에서 다룬 '나경원 의원 자녀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를 둘러싼 논란' 프로그램의 취재내용을 미리 뉴스에서 내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 MBC <뉴스데스크>는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나경원 의원 자녀 특혜 내용을 속보 형식으로 다시 전했다. 나 의원은 "해외연수는 당시 성신여대 측이 먼저 제안했고, 위스콘신대도 동일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는데, 학교 측은 학생 어머니가 먼저 문의했었다고 주장해 엇갈리는 대목이라 전했다(2.18).

▶ 나경원 '자녀 특혜' 보도 반박...학교와 엇갈린 해명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2359_32524.html

3. MBC <뉴스외전>의 나경원 의원 자녀 관련 보도

○ MBC <뉴스외전>에서 서유정 스트레이트팀 기자, 배주환 스트레이트팀 기자가 출연해서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제기 MBC 기자에 민사소송, IEEE 회원들 "나경원 아들 '4저자 포스터' 조사해야"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2.18).

▶ [이슈 완전정복] '표절 논란' 학술 포스터 국제학회 조사 착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400/article/5662233_32503.html

4. MBC의 나경원 의원 자녀 관련 집중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 탐사 다큐멘터리인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 나경원 의원 자녀와 관련된 하나의 이슈에 대해 끈질기게 추적한 3편의 프로그램으로 엮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 또한, MBC <뉴스데스크>에서 리포트로 2편, <뉴스외전>에서는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 취재했던 기자가 또 출연해서 집중적으로 나경원 자녀와 관련된 이슈를 확대 보도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 그렇지만 이번에 MBC에서 <스트레이트>, <뉴스데스크>, <뉴스외전> 등에서 나경원 의원 자녀와 관련한 집중 보도는 현재 총선기간임을 감안하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 참고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제5조(공정성) ②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형평성) ②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②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12.22.).

IV. MBC<뉴스데스크>의 ‘대구 혐오’ 조장과 문비어천가 보도

1. 대구 지역혐오 부추기며 코로나 확산책임 떠넘기는 MBC 보도, 이어지는 문 대통령 ‘심각’단계 격상 발표

- 정부가 ‘대구 코로나’란 제목의 지역 혐오성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사과한 2월 22일(토) MBC <뉴스데스크>는 총 18건의 보도기사 가운데 17건을 ‘코로나19’ 보도로 채우면서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상황을 톱기사에서부터 무려 12건이나 집중보도했다. 특히 “대구 신천지발 감염 전국 ‘확산’”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이 사실상 대구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보도해 결과적으로 지역 혐오까지 불러일으켰다. 나머지 5건도 신천지 조직 및 중국 포교, 인근 부산 지역 코로나 보도, 광화문 보수집회 강행 보도였다.
 - 정부의 ‘대구 코로나’ 보도자료 논란에 관해서나 이후 정부의 사과 발표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코로나 세계 확산의 원인국인 중국의 문제나 책임에 대한 보도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고(‘확산세 잡히나’란 옹호 기사 뒷부분에 완곡한 표현의 언론자유 언급), 중국 입국 금지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 명이 넘어서는 데도 언급이 없이 ‘아직 통제 가능한 상태’라는 정부의 반대 입장만 그대로 전했다.
 - ▶ ‘중국인 입국금지’ 靑 청원 마감...76만 명 서명 <YTN 2.23>
 - ▶ 확산세 잡히나中 대응 비판한 교수도 ‘연락 두절’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1573_32524.html
- 이런 MBC의 대구 코로나 집중보도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해 대통령 역시 대구 코로나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사태 발생 후 4일이나 지난 뒤의 뒤늦은 조치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1) '대구 코로나' 관련 정부 발표와 MBC 보도 내용

- [2.20] 정부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가동' 보도자료 발표
- [2.20~2.22] 온오프라인에서 '대구 코로나19'는 특정 지역 편견 조장 표현이라는 항의 이어져
- [2.22] 오후
 - 정부, "“대구 코로나' 보도자료는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 국민께 사과 드린다"란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발송
 - 대구시, '대구코로나·대구폐렴' 표현 쓰지 말아달라. 법적 대응할 것' 발표

2) [2.22] 저녁 MBC <뉴스데스크> 보도

- 전체 보도기사 18건중(날씨,클로징멘트 제외) 17건을 '코로나19' 보도
 - 12건이 '대구경북 코로나19' 보도
 - 2건이 신천지 조직 및 중국 포교
 - 2건이 부산 코로나 보도
 - 1건 광화문 보수집회 강행
 - 마지막 1건은 자사 사장 내정 보도

▶ 2.22일 방송기사 전수 리스트

- ①무더기 확진 왜?...5개 시설 엘리베이터는 1대 (경북 청도 대남병원)
- ②중증 환자 8명 2명은 위독...중증 환자도 증가세 (경북 청도 대남병원)
- ③이 시각 대구 의료원...확진자 상태 안정적 (대구 의료원)
- ④신천지 신도 1,261명 "증상"...710명 연락 안 돼 (대구 신천지교회)
- ⑤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 교회...'연결고리'는?(경북 청도대남교회+대구 신천지교회)
- ⑥경주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3번째 사망자 (경북 경주)
- ⑦대남병원 정신병동...코로나19 첫 '코호트 격리' (경북 청도 대남병원)
- ⑧"신천지 '추수꾼' 막아라"...미사 중단에 영상 예배 (대구 신천지교회)
- ⑨신천지 신도 24만 명...3,4명씩 점조직 '포교' (신천지교회 전국조직)
- ⑩무료 상담 사이트로 중국에서 '신천지' 포교 (신천지교회 중국선교)
- ⑪신천지발 감염 전국 '확산'...위기 경보 격상? (대구 신천지발 전국 감염 확산)
- ⑫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직원도...24일까지 '폐쇄' (경북 구미 삼성전자 사업장 폐쇄)

- ⑬집회 금지에도 '강행' 몸싸움…"야외는 감염 안 된다" (광화문 보수집회 감염 논란)
- ⑭포천 육군부대도…대구로 휴가 다녀온 병사 확진 (대구 휴가 다녀온 병사 확진)
- ⑮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온 9명…무더기 '확진' (경북지역 신도들 성지순례후 확진)
- ⑯부산도 비상…격리 수칙 어기고 동선 길어 (대구 다녀온 여성 등 양성 반응)
- ⑰"4차례 음성 나왔는데"…우한 교민 아들 확진? (부산의 우한 교민 아들 확진)
- ⑱MBC 신임 사장에 박성제 보도국장 내정. (이상)

(기사 내용)

⑪신천지발 감염 전국 '확산'…위기 경보 격상? (대구 신천지발 전국 감염 확산)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신천지 대구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감염 확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발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들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상향'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 환자는 231명.

전체 누적 확진환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신천지 교인 환자는 대구에서 발생했지만, 경북 26명, 광주와 경남이 각각 4명, 서울이 3명, 경기와 강원이 2명, 인천, 울산, 세종, 전남, 충북에서도 신천지 교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환자들이 1명씩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31번째 환자와 함께 대구에서 예배를 본 뒤 전국 곳곳으로 흩어진 타지역 교인들만 2백명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예배 참석자들과 접촉을 했거나, 단순히 대구 방문을 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들도 부산과 대전,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것.

신천지발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2.21] 저녁 MBC <뉴스데스크> 보도

- 24건 일반기사 가운데 20건이 코로나19 보도. 이중 15건이 대구지역 코로나 보도
- 이중 11번째 기사에서 리포트 기사는 첫 멘트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라고 거듭 강조하며 시작

4) 정부와 문 대통령 발표 내용

- [2.21] 정부 "아직 통제 가능한 상태"…위기 단계 격상 안한다
- [2.23] 문 대통령,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발표

2. 정치권 가십 코너 ‘정참시’의 편파성.

“문 대통령은 MBC에겐 하해와 같은 ‘어버이’이신가?”

- 지난 한주 ‘정참시(정치참견시점)’란 코너는 모두 4회에 8건의 기사 보도
 - 대부분인 7건이 야당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판
- 1건은 대통령을 미화하는 유체이탈식 어용 보도. <‘거지같아요’ 논란에… 文 "소탈한 표현">이란 기사로 민생경제추락의 생생한 본질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추후 수습용 발언만 면죄부 차원을 넘어 미화하는 전형적인 ‘문비어천가’ 보도. 대통령이 거지같다고 한 상인에게 비난을 퍼부은 자신의 극렬 지지자(문빠)들에게 자제 요청을 한 것도 아니라는 청와대의 설명도 소개. 결국 자신에게 ‘거지같은 민생’이라고 내뱉은 상인도 대통령은 소탈하다고 했다는 것이고, 이런 상인을 비난한 대통령 극렬 지지자도 문 대통령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은 하해와 같은 ‘어버이 수령’이 되신 것이고, 여기에서 실종된 것은 ‘국민의 민생’이다. 하해와 같은 문 대통령에게 이것도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MBC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 경제위기 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도 2월 18일 코로나 10건, 정치사회 6건 다음의 17번째 후반부에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잇따라… 文 "비상 경제 시국">이란 제목으로 한 차례만 경시 보도

▶ 정참시(정치참견시점) 보도 내용 전수

- [2.17] 황교안 실수 연발, 당명이 헛갈려…(야당 대표 부정적 묘사)
 - /통합 잔칫날…유승민은 안 왔다 (야권 통합 부정적 묘사)
- [2.18] 통합하자마자 영입! 영입하자마자 취소? (통합야당 부정적 보도)
 - /“제명 좀 시켜줘요!”…셀프제명 봇물 (야당 비하적 보도)
- [2.19] ‘거지같아요’ 논란에… 文 "소탈한 표현“ (경제추락 본질 외면, 대통령만 미화)
 - /삭발투혼 이연주, 험난한 부산행 (통합야당 논란상)
- [2.20] 또 꺼낸 탄핵카드…이번엔 통할까?
 - (본질인 중대 범법 내용은 외면,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
 - /SNS보니…이낙연의 인사 황교안의 식사
 - (형식상 중립보도이나 황교안 부정적 이미지 거론)

(기사 내용)

- [2.19] ‘거지같아요’ 논란에… 文 "소탈한 표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시장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그날 상황부터 보시죠.

[시장 상인]

(좀 어떠세요?)

"거지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논란이 된 발언> 거지같아요."

그런데 이 상인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인터넷 댓글들을 근거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대통령 앞에서 할 소리냐"며 비난을 퍼붓고 전화번호 등 신상을 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하루 너댓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밝힌 입장은 어떤 내용이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그 분이 공격받는 게 안타깝다"면서, 문제가 된 '거지 같다'는 말은 "서민적이고 소탈한 표현"으로 "전혀 악의가 없었고 오히려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극렬 지지층에게 공격 자제를 요청한 것이냐, 질문도 나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층을 향한 말이 아니고, 악의가 없는 대화였는데, 오해 때문에 피해를 생긴 게 안타깝다"는 뜻이라며, "문재인 극성 지지층만 악성 비난을 하는 건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상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이번 일이 여권 지지층 공격에 이용되는 것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상)

V. '우한 폐렴 사태도 정부에 유리하게' '질병뉴스의 정치화' JTBC <뉴스룸>

1. 중국·정부 책임이 사라진 '우한 폐렴' 보도

▶ "후베이성 전역 외출금지령..."일가족 4명 치료 못 받고 사망"(2.1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5168&pDate=20200217

- (앵커) "중국 화난이공대 샤오보타오 교수가,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 실험실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다는 논문을 기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중국 내에서 나온 주장이라 파장이 컸는데, 현재 해당 논문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우한 질병센터가 사스 숙주였던 쥐터우 박쥐 450여 마리를 포획해 실험했었고 발원지인 화난 시장의 거리가 280m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우발적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정황에 불과하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고 전했다.

○ <뉴스룸>은 중국에서 하루 새 1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왔고 신규 확진자도 2000명 남짓 발생했다는 소식과 대만에서의 첫 사망자 소식, 중국 당국이 후베이성 전체에 '외출 금지령'을 내린 사실 등을 보도했다. 또 중국 화난이공대 샤오보타오 교수가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이 당초 알려진 화난 수산시장이 아니라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논문을 기고한 사실 등을 전했다. 우한 폐렴 사태가 중국의 생화학무기 실험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의혹은 세계 각국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룸은 별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발표를 가짜뉴스로 부인한 중국 당국의 발표를 더 신뢰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전형적인 중국 눈치보기, 친중보도로 분류된다.

▶ **입국 앞둔 중국 유학생 5만여 명…정부-대학 ‘떠넘기기’(2.1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5140&pDate=20200217

▶ **중국인 유학생 1만7000명 입국 앞뒀…“공항서 바로 픽업”(2.2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6097&pDate=20200221

○ 앵커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숙사 말고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은 통제하기가 더 어렵고 유학생들이 스스로 격리를 안해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대학들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녀도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어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2.17).

○ 앵커는 “3월 개학과 개강이 다가오면서 유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와 지자체 등은 우선 중국인 학생이 들어오면 공항에서 바로 셔틀버스를 태워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2.21).

○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이상, 대학이 중국인 입국자 중 한 부류인 대학생들을 조치할 방법은 없다. 정부의 책임인 방역대책의 비용과 위험부담을 모두 대학이 떠맡는 셈이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지적이 없이 정부와 대학을 양비론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가리는 사실상의 물타기이자 균형을 잃은 보도다. <뉴스룸>은 중국 유학생은 관리하고 여행객은 방치하는 정부 대책 모순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는 정부 눈치보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 **지역사회 감염 인정하면서도…"위기경보 '경계' 유지"(2.2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6225&pDate=20200222

▶ [인터뷰] '코로나19' 추가 사망자 가능성...어떻게 보나(2.2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6226&pDate=20200222

-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위기단계 수준을 '경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단계를 올리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대구경북지역은 심각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 :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된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2.22).
- “[앵커]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셨던 전병을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부터 좀 여쭙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 하는 도중에 세 번째 사망자로 추정되는 환자가 나와서 이게 사실 메르스 때보다 치명률이 낮다, 이랬는데 결국 코로나19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면 좀 치명적인 건가요?”라고 대답했다(2.22).
- 환자 수가 급증하는데 정부의 대처상황에 대해 받아쓰기 보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뉴스룸>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바이러스 근본적인 확산 원인(대한의협 등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진단과 비판보도는 거의 전무하고 우한 폐렴 확산 소식과 방역당국의 대처소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도하면서도 <뉴스룸>은 정부가 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고집하는지에 대한 심층 취재가 없다. 확진자가 5백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5명이나 발생하는 우한 폐렴 사태에 있어 <뉴스룸>은 정부 눈치보기로 일관해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2. ‘우한 폐렴’ 여권발 ‘망언’ 감춘 <뉴스룸>

- <뉴스룸>은 지난 한 주 방송 시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한 폐렴 관련 보도에서 청와대와 여권에 불리한 보도는 일체 하지 않았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급증하고 첫 사망자가 나온 2월 20일 청와대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팀과 오찬 행사를 하고 이 자리에서 봉준호 감독의 대통령에 대한 아부 발언, 김정숙 씨가 파안대소하는 등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고, 언론 다수가 이를 보도하고 포털

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비판 여론이 쇄도하며 들끓었지만, <뉴스룸>은 이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다.

- <뉴스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망언을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 장관은 2월 21일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역대책의 한계가 ‘창문 열고 모기 잡는 식’이라는 전문가들과 국민적인 여론 비판에 대해 “겨울이라 모기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특정 국가 유입자를 막는 정책이 방역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박 장관은 말장난으로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뭉갠다. <뉴스룸>이 이를 지적했어야 했지만 이 이슈를 다루지 않고 배제했다.
- 손혜원 의원이 2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세먼지 때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만 이럴 때(우한 폐렴) 전 국민이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남편이) 꼴보기 싫어한다”고 한 발언이 언론보도로 늦게 알려졌고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했지만 이 망언도 <뉴스룸>에선 보도하지 않았다.

3. ‘금태섭 VS 김남국’ 공천논란 ‘알아서’ 불 끈 <뉴스룸>

- ▶ 민주당 '교통정리' 속도…금태섭 지역구 등 80여곳 추가 공모(2.16)
 - ▶ 금태섭 지역구에 출마 선언한 김남국…'조국 대리전'(2.18)
 - ▶ 김남국, '강서갑' 금태섭 지역구에 공천 신청…엇갈린 반응(2.19)
 - ▶ 김남국, 강서갑 대신 금천 출마?…민주, 교통정리 나서(2. 20)
- 금태섭 의원 공천 논란에 대해 <뉴스룸>은 드라이하게 전달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공수처 설치 반대’ 등 여권과 다른 목소리를 낸 금 의원에 대한 소위 대깨문과 정봉주 전 의원 등 친문세력의 공격은 여론 비판이 거셌고, 조국백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수호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금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자객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론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은 민감한 이슈로 부상했다. 그러나 여권의 폐쇄성, 극단성을 보여주어 금태섭 의원 이슈는 총선에서 여권에 매우 불리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
 - <뉴스룸>은 포털 댓글이 많이 달리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여권 공천 정국의 핵심인 금태섭 의원 이슈에서 민감한 쟁점 사안은 지적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단순 팩트 전달에만 그쳤다. <뉴스룸>은 특히 손혜원, 김병욱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 관련 의견은 보도했지만 여권에 불리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비판은 절대 보도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진중권이 <뉴스룸>의 사실상 블랙리스트로

보인다. 보도가치가 큰 대상은 배제하는 식의 <뉴스룸>의 이러한 ‘블랙리스트 보도’는 순전히 정권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 기준으로 보인다. <뉴스룸>이 민주당 총선에 악영향을 줄 요소는 알아서 배제하는 총선개입형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

Ⅵ. 뒷북 대응에도 정부 자화자찬만 옮겨 적은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자 연합뉴스는 때를 만난 듯 ‘문(文)비어천가’에 열을 올렸다. 많은 매체가 ‘뒷북 대응’을 질타했지만 연합뉴스는 철저히 외면한 채 ‘결단’, ‘감염병 관리 역량 충분’, ‘자신감 갖고 함께 승리’,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한 뉴스통신의 초라한 민낯을 또다시 드러낸 추태가 아닐 수 없다.
- 연합뉴스는 문 대통령이 일요일인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한 후 수많은 관련 기사를 송고했다.
 - <문 대통령, 위기경보 격상 결단…'코로나19' 진압 총력전 선포>(02.23 16:44)는 기사라기보다는 모두 발언 내용을 기사투로 옮기면서 그대로 받아쓰기한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제목부터가 눈에 거슬린다. ‘뒷북 대응’ 지적이 거센 터에 ‘결단’이란 용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 <문대통령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려…중대분수령"(종합)>(02.23 16:52) 역시 분량이 무려 3,000자에 육박하는 장문의 스트레이트였지만 받아쓰기는 매한가지였다. 문 대통령이 신천지 탓만 하며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사과나 능력 격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서 '심각'으로 상향…"총력 대응"(종합)>(02.23 20:23)에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위기 경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있었다”며 의료계 의견을 간단히 소개하는 두루뭉수리로 넘어간 게 전부다.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 한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오염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청와대의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나 전달한 게 고작이고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 조치가 또 불발된 사실에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다.
 - 연합뉴스의 이러한 보도는 많은 매체가 온라인에 올린 관련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전하면서 격상 조치가 ‘뒷북’ 내지 ‘능력’이었다는 비판적 논조를 곁들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 한국경제 <코로나 대응단계 '뒷북 격상'…文 "며칠이 중대 고비, 위기경보 '심각'으로 강화">(02.23 16:21), 세계일보 <일각 “골든타임 놓친 뒷북” 비판>(02.23 18:38), 머니투데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구호에 그친 '선제적 대응'>(02.23 16:44), 매일경제 <코로나 공포 / 뒤늦게 위기경보 상향>(02.23. 22:08), 서울경제 <"제한적 확산" 되풀이하더니...전국 확진자 폭증하자 뒷북 상향>(02.23. 17:58), 뉴스1 <주말 환자 400명 늘자 '심각' 경보…'사후약방문' 비난>(02.23 19:20), 국민일보 <의료계 경고 무시하더니… 뒤늦은 '심각' 뒷북 대응>(02.23 21:41) 등 본제목이나 부제목으로 문제점을 짚은 매체가 부지기수다. 다른 매체들은 기사 본문에서 “정부의 늦은 대처”(조선일보) 등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 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하거나 자국민의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들을 내보내면서도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를 감싸느라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 확대를 주저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다.
 - <코로나19로 한국발 입국 제한 확대…문 닫은 이스라엘·바레인(종합2보)>(02.23 21:13), <이스라엘 "한국·일본서 온 외국인 입국금지" 공식 발표(종합2보)>(02.23 22:02), <"요르단도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금지…중국·이란인도 함께"(종합)>(02.23 22:36) <이스라엘, 한국·일본에 여행경보…한국 내 자국민에 출국권고(종합)>(02.24 01:09) 등의 기사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추가 조치는 완전히 금기어로 취급됐다.
 - 반면 중앙일보는 <중국인 입국금지 왜 안했나…'눈치 보기'로 방역 실패 논란>(02.23 16:51)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2일 마감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76만1000여명이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동안 상당수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정권이나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한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연합이 이념에 매몰돼 국민의安危까지 내팽개치고 중국에 할 말도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기는커녕 홍보 대행자로 나서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끝.

[참고 말씀]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